

CBS

디지털 아카데미 2022 개최



CBS가 2022년 2월을 기점으로, 매월 전문 강사를 초청하는 디지털 아카데미를 개최하여 미디어 시장의 트렌드와 전략을 논의 중이다. 경제 전환과 미디어 시장 재편 방향, 구독 모델 등을 다뤘었고, 4월 19일, '뉴즈' 김지윤 이사를 초청해 <커뮤니티의 시작, 숏폼>이라는 주제로 숏폼 전략과 사례에 대해 2시간의 강의 및 질의·답변 시간을 가졌다. 'Webex meeting'을 통한 스트리밍 송출과 원격 참여가 소통 공간 확장에 도움을 주었다. 추후 펼쳐질 아카데미 강의도 다양한 미디어 방향성 정립에 도움 줄 전망이다.

YTN

1 스튜디오 개선 공사 실시



YTN은 지난 3월 21일부터 4월 29일까지 1 스튜디오 세트 공사를 진행했다. 비디오월과 세트, LED 조명 설치를 통해 스튜디오 개선 공사가 완료되었고, 5월부터 시청자들에게 새로운 스튜디오를 공개할 예정이다.

EBS

신임 융합기술본부장,
ICT 기획센터장 임명

하태익 본부장



박창홍 센터장

EBS는 2022년 4월 12일부로 조직개편을 시행하며 신임 융합기술본부장으로 하태익 본부장을, ICT 기획센터장으로 박창홍 센터장을 임명하였다.

하태익 신임 기술본부장은 “보다 세분화된 조직을 기반으로 EBS 콘텐츠 품질을 높이는 데에 앞장서겠다”라며 “AI, 메타버스, XR 등 신기술이 제작 일선에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겠다”라고 강조했다. ICT 기획센터는 다양한 신기술을 내재화하고 ICT 컨트롤타워 역할을 위해 이번 임명된 조직으로, 센터장을 맡게 된 박창홍 신임 센터장(EBS 기술인협회 24대 협회장 역임)은 “전사적 IT 전략 및 계획을 수립하고 ICT 통합 운영을 통해 신규 서비스 발굴 및 안정적 인프라 관리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OTT, 콘텐츠 제작비 세제 지원
발판 마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지난 21일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2소위)를 열어 'OTT 세제지원' 근거법 포함 총 24건의 법안을 심사했다. 이를 통해 과방위는 OTT를 전기통신사업법 상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해 OTT 사업자 세액공제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로써 OTT 콘텐츠 세제 지원까지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에 'OTT 지원 조항'만을 남겨두고 있다.

SBS

NFT 사업 추진



SBS는 NFT 프로젝트인 트레저스클럽과 NFT 사업 관련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트레저스클럽과 SBS 프로그램 IP를 활용한 NFT 및 관련 사업 분야에서 다각적인 업무협력을 진행할 계획이다. 대체불가능토큰(NFT) 시장 진출을 통해 SBS 콘텐츠에 새로운 소유의 가치를 부여 및 극대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팬 중심의 비즈니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략적 제휴를 지속해서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메타버스, 온오프라인 팬덤 사업까지 전방위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 제18대 지도부 임기 시작



정형택 SBS 본부장 겸 지부장, 강용주 SBS A&T 지부장, 홍창욱 스튜디오 지부장은 조합원들의 높은 찬성률로 임기를 시작했다. 18대 노조는 수평적 노사 관계를 만들어 존중과 협의의 파트너로서, 산적인 현안을 해결하고 조합원의 이익을 지켜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또한, 이전과 분사 등 대대적인 조직개편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조합원의 이익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앞장서며 지난 20일, 18대 SBS본부 노조 발대식 및 정기 대의원 회의가 개최되었다.

ETRI

NAB 2022에서 8K-UHD 기술 알린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NAB 2022에서, 최신 8K-UHD 방송 및 5G 융합 미디어 방송기술을 선보였다. ETRI가 이번 전시회에서 국내 방송장비업체들과 함께 공개하는 기술은 ATSC 3.0 기반 기술로 먼저, 효율적으로 주파수를 활용하는 MIMO 기반 8K 서비스 기술, 실시간 스트리밍을 제공하는 OTA/OTT 연동 8K 서비스 기술, 다수의 사용자에게 지상파 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5G-MBMS 방송 시스템 등 8K-UHD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기술들이다. 연구진은 북미 지상파 방송 규격인 ATSC 3.0 표준을 준수하는 MIMO 송·수신기를 통해 8K-UHD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를 선보였다. 이번 전시회를 통해 선보이는 기술은 ETRI가 KBS, 클레버로직, 카이미디어, 아고스, 로와시스 등 국내 방송장비업체들과의 오랜 공동연구를 통해 개발한 순수 국내 독자 기술이다.

KT스카이라이프

KT 그룹 미디어데이 행사 개최



강국현 KT 커스터머부문장이 지난 7일 KT그룹 미디어 데이 행사에서 미디어 사업 성장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KT는 향후 3년간 5,000억 원 이상을 투자해 미디어 관련 매출(2021년 3조6,000억 원)을 1.4배 이상 키울 계획이다. KT의 미디어 사업은 KT 스튜디오지니를 중심으로 한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유통과 skyTV의 채널 재구조화를 통한 예능 콘텐츠 확대 등 두 축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KT는 KT스튜디오지니만의 오리지널 콘텐츠 확보를 위해 2024년까지 24편을 제작한다는 계획이며, 윤희필 skyTV 대표는 “skyTV는 지난 5년간 시청률 131% 성장, 광고 매출 68% 증가 등 성과를 냈다. 앞으로 KT그룹에 합류한 미디어지니(구 현대미디어)와 시너지를 통해 ENA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Wavve

자동 자막 기술 개발 추진

웨이브가 웨이브 컨소시엄을 통해 '구어체 방송 콘텐츠를 위한 자동 자막 제작·편집 기술 개발사업'을 추진한다. 컨소시엄에는 웨이브를 비롯해 트위그팜, SBS, 시스템란, 푸르모디티 등 5개 기업이 참여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방송기술 개발사업에 선정돼 오는 2024년까지 진행되는 기술개발 프로젝트에 돌입한다. 컨소시엄은 현지화 비용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콘텐츠 전용 한국어 음성인식기, 장르별 문맥 기반 기계 번역기, 클라우드 자막 편집 도구 등 다양한 서비스 모델과 도구를 개발할 계획이다.

KBS

지역총국 제작시스템 파일 전환 사업 시행

KBS 전주방송총국과 청주방송총국이 올해부터 제작시스템 파일 전환에 들어간다. 뉴스, 프로그램, 광고의 제작과 송출 워크플로우 파일 전환이 이루어지고, 총국 간 로컬 프로그램 및 보도 영상의 파일 교환시스템이 개발될 예정이다. 전환 사업은 1월 시작되어 올해 하반기 장비 도입과 시스템 구축을 거쳐 23년 4월, 파일 전환을 완료하고 시스템 안정화를 기할 예정이다.

미디어기술연구소, 디지털 융합네트워크 통합 전송기술 연구개발 추진



KBS 미디어기술연구소가 올해 말까지 방송망(ATSC 3.0)과 통신망(5G/Wi-Fi)의 장점을 결합해 난시청 해소, 콘텐츠 도달률 확대, 수신품질 향상이 가능한 미래 네트워크 기술인 디지털 융합네트워크 통합 전송기술 연구개발에 들어간다. '이여도'라 명칭되는 기술 개발을 통해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으로 전환 및 적용 서비스 범위를 넓힌다는 계획이며, 아시안게임, 월드컵 대형 라이브이벤트 시험/시험서비스를 통한 기술 검증에 들어간다.

MBC

첨단 AI 딥러닝 기술로 영상 교과서 만든다



MBC 사내벤처 <딩딩대학>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전파진흥협회가 주관하는 뉴테크 융합 사업에 지원해, 치열한 경쟁 끝에 최종 선정됐다. 뉴테크 융합 지원 분야는 올해 처음 모집을 시작한 사업 분야로, 인공지능 기술 등의 신기술을 활용해 방송 제작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딩딩대학> 측은 이를 위해 AI 영상처리 기술 관련 우수 연구 실적과 다수의 국제특허를 보유한 이화여대 강제원 교수팀과 함께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기술 개발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모두 2억 원의 정부 지원금이 투입되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딩딩대학>은 국내 처음으로 아카이브 자동 검색과 요약 등 첨단 AI 딥러닝 기술을 지식 교양 콘텐츠 생산에 적용할 예정이다. 지난해 MBC 사내벤처 2기 공모를 통해 선발된 지식 콘텐츠 스타트업 <딩딩대학>은 현재 자체 유튜브 채널을 통해 경제와 국제정치 등의 강의 콘텐츠, 라이브 질의 응답 방송 등을 제공하고 있다.

무한도전, NFT로 재탄생 되다



MBC '무한도전'이 전문 작가를 만나 NFT 아트로 재탄생되는 전시회를 4월 13일부터 5월 8일까지 열며, MBC 스마트센터에서 관람할 수 있다. 지난 3월, MBC는 NFT 아트테크 시장의 강자로 급부상 중인 (주)아트토크와 NFT 플랫폼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뒤, 방송 IP를 NFT 아트로 전환해 지속 성장 가능한 NFT 사업 모델을 발굴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해왔다. 이번 전시회는 그 결과물을

처음 선보이는 자리로 MBC가 보유한 '무한도전' 콘텐츠 자산이 새로운 디지털 자산이 되어 대중들을 만났다.

방송콘텐츠 글로벌화를 위한 제작 부문 인프라 구축 및 투자 활성화 방안 세미나 개최



한국미디어정책학회, 한국방송학회, 정필모 의원, 김영식 의원은 15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방송콘텐츠 글로벌화를 위한 제작 부문 인프라 구축 및 투자 활성화 방안> 세미나를 공동 개최하고, 국내 방송콘텐츠의 세계 진출을 강화할 정책 방안을 모색했다.

세미나에서는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도록 '국내 방송 콘텐츠 생산 기반을 강화시킬 수 있는 콘텐츠 투자 활성화 정책'과 '산업적 차원의 진흥 전략'의 필요성이 언급되었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공동주최자인 한국방송학회 도준호 회장은 "방송 인력과 제반 인프라에 대한 장기간의 투자가 이루어져야만 안정적인 미디어 콘텐츠 제작 기반이 만들어질 것"이라 밝혔고, 또 다른 공동주최자인 김영식 의원은 "국내 미디어 산업에 부과되고 있는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하고, 혁신으로 나아갈 수 있는 부문에 과감한 투자가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이한울 고려대 교수는 '국내 콘텐츠 경쟁력 강화 방안'을 주제로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해외의 다양한 콘텐츠 제작 지원 정책을 소개하며, "우리나라에서도 모태펀드 등 콘텐츠 투자 촉진, 콘텐츠 기업 간 M&A 규제 완화 등 국내 제작주체가 충분한 자본을 확보해 경쟁력 있는 글로벌 向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 정책이 펼쳐져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교수는 "글로벌 시청자의 콘텐츠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데이터 확보가 핵심 관건"이라고 밝히며, "데이터 수집이 가능한 메타 데이터의 적극적 활용과 AI 기반 데이터 수집 분석 시스템 도입, 데이터 분석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 시청자의 취향을 정확히 파악한 콘텐츠 제작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는 이성민 한국방통대 교수가 '콘텐츠 성장 기반 조성 방안'을 주제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인프라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OTT를 중심으로 한국 콘텐츠가 세계적인 각광을 받는 현상은 국내 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진출 확대와 성과 창출의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생산요소 시장에서는 국내 제작 기반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국내 방송 콘텐츠 제작 생태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위협요인(생산요소 유출)은 최소화하고 기회요인(시장 확대)은 최대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그간 국내 방송사업자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이 부족했다"고 지적하며, "기존의 규제 중심 접근을 전략적 산업 정책으로 전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교수는 "방송콘텐츠 분야의 해외사업에서 비즈니스 컨설팅, 저작권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특화된 기관으로서 '(가칭) 미디어콘텐츠 무역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지속가능한 한류를 위해 방송 사업자의 콘텐츠 전문 기업으로서의 진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TBS

라디오(FM 95.1MHz) 봄 개편



TBS 라디오(FM 95.1MHz)가 지난 4월 봄 개편을 맞아 TBS 대표 장수 프로그램이었던 시사풍자 <9595쇼>를 부활시키고 라디오 경쟁 시간대인 오후 4시를 사수하기 위한 신규 프로그램을 선보이는 등 대대적인 변화를 꾀하였다. 매일 낮 12시에는 많은 청취자들이 그리워한 TBS의 대표 장수 프로그램 <9595쇼>는 개그맨 박성호와 강지연 아나운서가 맡아 진행하며, 매일 오후 4시에 선보인 <네시 상륙작전, 최장군입니다>는 TBS 최지은 아나운서가 진행을 맡는다. 또한, 평일 오전 10시에는 운전자 특화 교통 예능 <라쿠카라차>를 방송한다.